

歷史 · 地誌의 分類 (1)

—우리나라 現行分類表의 運用을 試圖하여—

李 丙 洙

歷 史

歷史의 範圍 및 定義 歷史는 宇宙萬象의 發展過程의 時間的 經過의 足跡이라는 意味에서 볼 때 그 對象에는 아무런 制限이 없고 自然界의 모든 現象이 歷史의 對象으로 된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歷史라는 것은 自然界의 現象을 除外한 人間의 生活에 關聯하여 나타난 여러가지 事象의 變遷過程만이 그 對象으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歷史라는 말은 廣義로 人間이 始初에 出現한 以後 人間에게 關聯하여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 足跡을 뜻한다.” 그러나 近代의 歷史家는 純全한 政治的 事件을 強調하는 편이 적고 人間事의 모든 分野에 있어서의 重要한 事件을 選擇하여 記述(歷史는 人間社會의 모든 部門의 發展의 事象을 研究 敘述하는 學問이다. 李丙燾)하려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分類에서는 歷史의 定義를 더욱 制限하고 있으며 이 歷史類는 政治的 單位와 그것들의 役割의 一般的인 發展에 限定시키고 民族單位의 歷史와 더불어 傳記, 系譜, 地誌, 古文書學(年代學, 金石學, 錢貨學, 考古學, 括弧 안은 筆者가 添加한 것임) 등과 같은 歷史에 對해서 補助的인 一般的 性格의 여러 가지 資料群을 이 類에 모은다.

“歷史를 民族이나 政治單位의 發展記錄으로서 定義를 내림으로써 特殊路線에 依한 人間의 發展過程은 이 類에서 除外된다. 全體的으로 國家에 影響을 주는 運動이나 事件에 關한 資料만이 이 類에서 자리를 차지한다. 國民生活의 特殊한 分野의 歷史(例: 教會史, 經濟史)는 이들 特殊主題와 함께 分類하고 歷史類와 함께 分類하지 않는다.”註1(Pettee)

註1 Merrill, William Stetson. Code for Classification. 3r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54. p. 132-133.

歷史와 地誌와의 關係 어느 한 地理的인 位置와 環境에서 어느 한 時點에 사람이 活動을 함으로써 歷史의 事象이 發生한다는 데에서 歷史와 地誌와의 關係는

매우 密接한 關係가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歷史가 地誌와 密接한 關係를 살펴 보면 첫째 歷史的인 事實은 時間과 場所 즉 地理的인 位置와 環境이 決定的인 要件이며, 둘째 歷史學의 原始形態 즉 說話的 歷史가 地理學의 先驅이고, 셋째 地誌가 歷史의 한 補助科學으로서 큰 役割을 한다는 點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歷史와 地誌는 아주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歷史의 研究에 있어서 地誌를 參照한다는 것은 不可缺의 要件으로 되어 있다.

歷史類는 大概 歷史, 地誌, 紀行, 傳記로 構成된다. 그러나 이것들의 排列順序와 方法은 分類表에 따라서 다르며 이 가운데에서도 첫째로 論議되는 것은 歷史와 地誌의 密接한 相互關係를 如何히 表現하여 排列하고 그것의 利用을 效果있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 그 評價의 對象이 된다. 現行 分類表에서 歷史와 地誌를 排列하는 方法을 나누어 보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첫째는 歷史와 地誌를 別個로 區別하여 排列하는 方法이요, 둘째는 歷史와 地誌를 別個로 區別하기는 하되 接近시켜 排列하는 方法이요, 셋째는 歷史와 地誌를 融合하여 排列하는 方法이다. 이 세 가지 方法中에서 첫째는 歷史와 地誌의 가운데에 傳記를 끼어서 排列하였기 때문에 密接한 關係가 있는 兩主題가 隔離되었으며, 둘째는 兩主題를 接近시키기는 하였으나 完全히 別個의 것으로 配置하였기 때문에 實際的인 利用에 不便하다.

歷史와 地誌를 別個의 것으로 取扱하여 配置하는 것은 여러 洲나 國家와 같이 研究對象이 뚜렷한 地域에서는 좋다. 그러나 地方史와 地方地誌 즉 道, 市, 邑, 村 등과 같이 좁은 地方의 歷史나 地誌는 接近 또는 融合하여 排列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地方史와 地方의 地誌, 例를 들면 서울市史, 釜山市史, 全州市史, 扶安郡誌 등의 地方史誌는 함께 모아 歷史에 分類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모두 韓國의 地誌로서 地理에 分類할 수도 있다. 또한 兩者를 分離하여 韓國의 歷史나 韓國의 地誌에 分類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 가운데에 어떠한 方法이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볼만한 問題이다.

圖書의 內容으로 볼 때 서울市誌, 大邱市誌 등은 이

것이 바로 歷史이며 地誌인 것이다. 이러한 圖書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 나라의 歷史와 한 나라의 地誌의 關係는 그것이 他國의 歷史나 地誌에 對한 關係보다는 密接하니 이것을 相互關聯있게 排列하는 것이 必要하다. 그러나 한 걸음을 사양하여 한 나라의 歷史나 地誌의 關係가 他國의 歷史나 地誌와 接近시키는 것보다는 意義가 없다 하더라도 地方史와 地方의 地誌는 接近시키는 것이 便利한 것이다. Cutter는 그의 分類表(EC)에서 이것을 接近시키는 方法을 提示하고 있다. 이에 對해서는 다음에 論하겠다. 다음에 世界 및 國內의 分類表의 歷史類內의 排列順序와 方法을 概觀한다.

먼저 十進法의 DDC 900 歷史는 910 地誌 920 傳記 930—999 歷史의 順序로 되었고, UDC도 DDC를 母體로 하였기 때문에 그 順序가 같으며, KDCP(朝鮮 十進分類表朴奉石編)의 200 歷史는 200—240 歷史 250 傳記 260—290 地誌의 順序로 되었고, 日本의 NDC의 200 歷史는 200—270 歷史 280 傳記 290 地誌의 順序로 되었다. 이 4種의 分類表를 볼 때 DDC와 UDC만이 歷史를 맨 끝에 排列하였다는 것이 다를 뿐으로 傳記를 中間에 끼고 있어 密接한 關係가 있는 歷史와 地誌가 別個로 區別되어 隔離 排列되었을 뿐 아니라 떨어져 있는 點에서는 다 같아서 모두 다 共通의인 缺點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같은 十進法인 KDC(韓國 十進分類法)는 900 歷史를 900—970 歷史 980 地理 990 傳記의 順序로 排列하여 歷史와 地誌가 接近되었기 때문에 以上の 어느 分類表 보다는 發展한 것이며 이것은 歷史와 地誌를 別個로 排列은 하지 接近시킨 EC의 排列順序를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十進法 以外的의 것으로 LC는 歷史를 C History Auxiliary Sciences(歷史學의 補助學) CT Biography D History and Topography(美國 以外的의 各洲 및 國家의 歷史 및 地誌) E-F America(美洲) G Geography Anthropology(地理學 및 人類學)으로 되어 있고, SC(Subject Classification)는 O-W Universal History, Geography and Africa(00 世界歷史 01 古考學 02 世界地誌 03 아프리카 P 大洋洲 및 亞細亞 Q.R Europe General and South. (Latin, etc.) (歐洲 一般 및 南歐洲) S.T Europe, North(Teutonic and Slavonic)(北歐), U.V British Island(英國) W America(南北아메리카) X Biography(傳記)의 順序로 排列하였고, EC(Expansive Classification)는 E Biography F History(F 30 歐洲, F 60 亞細亞, F 70 아프리카, F 80 아메리카) G Geography and Travels[F와 같이 local list의 番號로 區分한다](地誌 및 紀行)의 順序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 LC와 SC는 歷史와 地誌 또 傳記까지도 接近融合시키고 있는데 兩者의 그 取扱上의 差異點은 LC가 나라마다에 따라서 順序와 精粗가 다르고, SC는 O-W에 各大陸 國家 主要都市를 配置하고 그 歷史 地理 傳記는 範疇表(Categorical table)에 依해서 區分하는 方法(例: 歷史는 10 地誌 및 紀行 33 傳記 41)을 取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助補表에 依해서 取扱하는 方法은 DDC, LC, SC, EC 등 以後에 編纂된 Bliss의 BC(Bibliographic Classification)에도 그대로 適用하고 있다. BC의 <Classes L, M, N and O SOCIAL-POLITICAL HISTORY>의 類의 大綱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註 2)

- L Historiology, Ancillary studies, General history and Ancient History(歷史學, 補助研究 一般史 및 古代史)
- M1—M9 補助表 4의 1—9에 依해서 區分되었다.
- MA General History of Europe
- MB—MD Medieval, Modern, Recent History of Europe
- ME The Papacy, the Temporal Dominion of the Pope, History of.
- MF Italy, History and Geography, Description etc.
- MG Germany: General, Geography, Aspects, Topics etc. (獨逸—一般史·地誌)
- MH Periods of the History of Germany(獨逸 時代史)
- MI States, Duchies, Cities, Regions, etc.(獨逸 地方史)
- MJ Switzerland
- MK Austria, Czechoslovakia and Poland
- ML Hungary
- MM Southeastern Europe
- MN Russia
- MO Northern Europe
- MP Netherlands
- MQ Spain and Portugal
- MR France, General, Geography, Aspect and Special Topics.
- MS Periods.(佛蘭西時代史)
- MT Counties, Duchies, Departments, Cities, Regions.(佛蘭西地方史)
- MU Great Britain, the British Isles, the British Empire, Common Wealth.
- MV Periods.(英國時代史)

MW Counties, Shires, Cities, Districts(英國地方史)
 MX Scotland
 MY Ireland
 N History of America (美洲史)
 NA—NI 美國時代史
 NJ—NR 美國地方史
 NS—NZ Latin America
 O Australia
 OH Asia, the East, the Orient
 OI China
 OJ Japan
 OJZ Korea
 OS Africa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歐羅巴 歷史中の 英國, 獨逸, 佛蘭西는 3個綱(section)씩을 賦與하고 美國에는 18個綱을 賦與하였다. 이것은 資料量의 多少에 依해서 精粗를 賦與하여 區分한 것이니 이 點에 있어서 進歩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OJ 日本 下의 目位 OJZ에 位置하여 있다. 이 歷史類는 다음의 補助表에 依해서 區分하게 되어 있다.

- ,1 Reference-books
- ,2 Bibliography
- ,3 Geography, Description, Topography
- ,4 Archaeology and Antiquities, also Inscriptions of historical value
- ,5 Archives and Documents of Historical importance
- ,6 Periodicals
- ,7 Miscellaneous, Collections, Selected Writings or Papers……
- ,8 Sources, Source-books, Readings, Selected etc.
- ,9 Biography and Genealogy, Collective and Individual
 General History of the Nations, State etc.,
 Compendious
- ,A Comprehensive Histories or Survey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 ,B Political History of the Nation, State etc.
- ,C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Nation etc.
- ,D Diplomatic History of the Nation etc.
 Treaties etc.
- ,E Economic History of the Nation etc.,
 Industrial History
- ,F Financial, Commercial, History or both

- together
- ,G Colonies of the Nation Colonial Policy, Dependencies, Minorities
- ,H Social History of the people, Social life, Morals, Customs, Laws
- ,I Intellectual History, of the Mental Traits, etc.
- ,J Societies and Institutions, Historical, Patriotic, Political, Nationalistic, also Leagues and other Corporations.
- ,K Religion, Nythology, Churches and Religious Cults and Societies.
- ,L Adaptable may be for Commercial History, if not under, F, or for Slavery.
- ,M Military History of the Nation, or State, or Country.
- ,N Naval History: including Training, Schools, Academies, etc.
- ,O Aviation, Air-forces, Organization, Forces, Training, Histories.
- ,P—V Periods of the History of the Nation, State, Country etc.
- ,W Local History, of component States etc.
- ,Y Special Subjects or Special Documents etc.

이 補助表는 歷史類內的 各國 各地方 어는 곳에서는 지 適用될 수 있다. 歐羅巴中の 獨逸, 英國, 佛蘭西와 같이 3綱을 준 곳에서는 第1綱(First Section) 第2綱(時代史) 第3綱(地方史)等에도 適用될 수 있다.

MH 獨逸時代史
 MHB 古代獨逸史
 MHB, 3 古代獨逸地誌
 MI 獨逸地方史
 MIB 버린史
 MIB, 3 버린地誌
 MIB, 9 버린人傳記
 OJZ 韓國史
 OJZ, 3 韓國地誌

註 2 Henry Evelyn Bliss. A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v.3 Class L—Z. New York, the H. W. Wilson Company, 1953.

이제까지 보아온 것 가운데에서 歷史와 地誌를 融合 排列한 分類表들에 對해서는 말할 必要가 없고 不便한 排列이라고 할 수 있는 歷史와 地誌의 分離排列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十進法이 아닌 EC와 十進法인 DC UDC KDCP KDC 및 NDC인데 이 가운데에서 EC와 KDC는 地誌와 歷史가 接近되기는 하

였으나 그것이 接近이 되었거나 傳記를 사이에 두고 分離되었거나 別個로 分離되었다는 事實은 多少의 差異는 있으나 不便한 點이 있으니 그것들을 合理的이고 便利하게 排列을 하기 爲해서 하나의 方法이 必要하게 된다. 그리고 그 適用은 어느 分類表에나 通할 수 있는 共通性을 띤 規定(方法)이 考慮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歷史와 地誌의 融合 排列方法>(規定)을 提示한다.

- (1) 歷史 다음에 地誌를 排列한다.
- (2) 一國의 歷史와 地誌에는 同一記號를 준다.
- (3) 歷史와 地誌는 混合排列하고 著者の 音順排列을 한다.
- (4) 한 나라 單位의 歷史와 地誌는 다른 記號를 주어 分離하되 道市郡邑面의 歷史와 地誌는 混合하여 歷史에 모은다. (그렇지 않으면)
- (5) 한 나라 單位의 歷史와 地誌는 다른 記號를 주어 分離하되 市郡邑面의 歷史와 地誌는 混合하여 地誌에 모은다.

地方番號 다음에 適當한 記號(例: G 또는 T)를 붙여서 歷史 다음에 排列한다.

(1)과 같이 歷史 다음에 地誌를 排列하는 方法은 各大陸·洲, 各國에 좋고, 道市郡邑面 等의 歷史나 地誌는 (3)과 같이 混合하여 著者の 音順으로 排列하는 方法을 採擇하는 것이 理想的이다. 英國에서는 地誌를 940T—999T 또는 T40—T99로 해서 940—999의 그 各歷史의 直後에 排列하고 있는 곳도 있다. (註3) DDC를 使用하고 있는 美國의 피츠버어그의 카네기 圖書館의 分類目錄은 한 나라의 歷史(例: 942 英國)바로 다음에 한 나라의 地誌(例: 914.2 英國地誌)를 排列하고 있다.

註3 Sayers. Introduction to library classification. 9th ed. 1955. 132p.

歷史類의 順序 DDC KDC는 歷史類를 다 같이 800 文學 다음인 900類에 配定하고 있으나 KDCP와 NDC는 100 哲學 다음인 200 歷史類에 配定하고 있다. 歷史類를 最終類인 900類에 둔 DDC나 KDC의 立場은 歷史는 人間生活의 最終記錄이라고 보는 것이며 歷史를 哲學 다음의 200類에 놓은 KDCP나 NDC의 立場은 東洋에서는 옛부터 傳統的으로 經史子集中의 經書와 歷史書가 所重히 여겨지고 圖書量도 많기 때문에 從來의 分類法이 歷史를 上位에 놓고 있는 것을 踏襲한 것이다. 裘開明編 漢和圖書分類法도 100—999 中國經營類 1000—1999 哲學宗教類 2000—3999 歷史科學類의 順序를 取하고 있다.

DDC와 KDC가 歷史類를 最終類인 900에 配置한 탓으로 그것과 가장 密接한 關係에 있는 社會科學을

300에 配置한 것을 非論理的이며 이것에 對해서는 Dewey 自身도 社會科學과 歷史類는 隣接케 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는 바다. 事實 “300 社會科學에 內包되는 많은 것이 900 歷史에 關聯하고 있는 것이 많으며 社會科學과 歷史는 混同하기 쉽다. 900類에 들어 갈 것을 잘 理解하면 300類에 어떤 것을 넣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알아진다. 例를 들면 一國의 立憲政治의 歷史는 그 나라의 歷史로도 될 수 있으나 憲法은 340에 넣고 一國의 歷史는 900에 넣는다.” (T. Eaton) 그런데 KDCP와 NDC는 200에 歷史를 300에 社會科學을 配置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接近하여 그 關聯性을 살렸다고 할 수 있다.

歷史類內的 綱配定 歷史類內 DDC의 綱의 順序는 Harris나 Schworts에 依한 것이 아니며 그것의 理論上的 根據는 땅 위에 사람이 있고 그 活動을 記錄한 것이 歷史로 본 것이다.

다음으로 歷史類內的 綱配定의 比重을 살펴 보면 DDC KDC NDC가 모두 歷史에 7個綱을 賦與하고 있는데 KDCP는 4個綱을 주고 DDC KDC NDC가 모두 地誌에 1個綱 傳記에 1個綱을 賦與하고 있는데 對해서 KDCP는 地誌에 3個綱 傳記에는 1個綱을 주고 있다. KDCP에서는 地誌에 3個綱을 配置하고 歷史에 4個綱을 配置하였는데 DDC KDC NDC는 歷史에 7個綱이나 配定하였으면서도 地誌에는 단 1個綱 밖에 配定치 않은 것은 그 比重이 問題로 될 것 같지만 도리어 KDCP에서 한 方法이 歷史와 地誌의 不均衡을 가져 오고 歷史의 區分語 보다도 地誌의 區分語가 더 넓어져서 한 地方에 對한 語彙는 同一하게 使用되었어야 할 것이 다르게 된 缺點을 招來하였는데 對하여 DDC나 KDC NDC는 地誌에 1個綱을 配定한 것이 地誌를 輕視해서가 아니라 歷史의 地理區分을 그대로 地誌에 適用 區分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助記性이 全的으로 維持되어 表를 簡素化하고 利用이 便利하게 된 것이다. 4個 分類表의 綱排列은 다음과 같다.

KDCP	
200	歷史總類
2001	世界史 文化史
210—240	歷史
250	傳記
260—290	地誌
KDC	
900	歷史
901.1	世界史 文化史(時代區分)
910—970	歷史
980	地理

990	傳記
	DDC
900	歷史一般
901.9	文明·文化史
909	世界史(古代·中世·現代)
910	地誌·紀行·旅行
920	傳記
930	古代史
940—990	現代史
	NDC
200	總類
209	世界史·文化史
210—270	歷史
280	傳記
290	地誌·紀行

歷 史

上記 分類表의 歷史類內의 各部門의 排列順序에서도 特히 傳記와 地誌를 除外한 純歷史에 關한 排列의 差를 본다.

歷史總類와 各論. KDCP KDC NDC는 모두 歷史의 總類(KDCP 200 KDC 900 NDC 200)의 直後에 各論(KDCP 210—240 KDC 910—970 NDC 210—270)이 繼續되었는데 DDC만은 歷史總類(900) 다음에 地誌(210) 傳記(920)의 兩個部門이 繼續된 탓으로 歷史의 各論(930—990)이 너무 隔離되어서 KDCP KDC NDC는 歷史의 一般形式區分 歷史補助學 및 世界史 文化史가 各國史와 接近되었는데 DDC는 歷史의 形式區分 및 文明·文化史와 世界史가 各國史와 떨어져서 不便하다. 또한 西 로마帝國의 滅亡以前을 古代史로서 930에 設置하고 現代史를 940—999에 設置하였기 때문에 同一國家의 歷史가 現代史와 古代史로 分離되어 不便하다.

歷史

DDC 900 아래에는 “政治·社會·文化·外交·軍事의 歷史를 包括的으로 다룬 著作”이라고 分類範圍를 定하고 있는데, KDC의 900 아래는 “政治·經濟·文化·社會·外交等의 綜合著作 및 文化史를 包含한다”는 註를 하고 있다. KDC가 <經濟>라 안 붙여도 좋을 <및 文化史>라는 말을 더 添加했을 뿐 兩者의 範圍는 같다.

가. 한 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事情, 外交關係 等の 現狀을 客觀的으로 說明한 著作(例: 韓國의 情勢)은

그 나라의 現代史에 넣는다.

나. <가>의 경우 著者가 본 見解나 印象을 主로 한 著作은, 社會文化事情(KDC 309)아래 分類한다.

다. 한 나라의 政治 經濟社會等의 變遷過程을 다룬 著作은, 短期間의 것이라도 그 나라의 歷史 아래 分類한다.

例: 寫眞으로 본 解放後韓國

歷史補助學

歷史補助學의 內容을 볼 때 KDC와 NDC는 同一하나 다만 NDC에서 230 參考圖書 아래의 203.8 歷史圖 歷史地圖가 KDC에서는 歷史補助學 아래의 902.89 歷史地圖로 옮겨졌을 뿐이다. KDCP도 內容은 KDC와 NDC 보다는 詳細하지는 못하나 歷史總類에 補助學의 各主題가 配置되었다는 데에서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DDC 16版에는 歷史補助學에 屬하는 歷史地理(Historical geography), 歷史地圖(Historical atlases), 913 古代文化 및 考古學(Antiquities and archeology of historical times)을 910 地誌아래 配定하고 있다. DDC 15版은 各國考古學은 그 나라의 歷史에 分類한다.

金石學

가. 碑文, 金石文으로 內容이 重要한 것은, 그 題銘의 主題 아래 分類한다.

나. 巖山 바위等 自然의 物體에다 어떤 目的을 이루려고 彫刻한 金石文은, 考古學에 分類한다.

다. 歷史的으로 興味가 있는 金石文은 歷史아래 記念된 事件 時代 또는 그 나라에 分類한다.

라. 言語 또는 文字로서의 興味가 있는 金石文은 語學아래의 各國語아래 分類한다.

DDC는 金石文을 言語學(417에 一般 各國語에는 —17) 아래 古文書學과 함께 設置하고 KDC는 歷史(一般 902.4, 韓國 911.0024)에 設置하고 NDC도 歷史(一般 202.8, 日本 210.02) 아래 設置하고 索引에는 書道(728)에도 指示가 있다.

考古學 對 歷史 Archeology vs. history

分類上 考古學은 그 區別이 複雜한 것이 있다. 歷史는 人類的 過去의 事件 또는 狀況事情을 主로 文字에 依해서 記錄(彫刻 記述 印刷)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에 對하여 考古學은 文明人이 남긴 文字로 記錄되지 않은 文字以前의 遺物 遺跡을 다루는 것이다. 즉 記錄된 歷史以前時代의 人間的 生活과 活動의 遺物, 遺跡을 研究하는 것이 考古學이다.

KDC, KDCP, NDC 모두 考古學을 先史考古學(Prehistoric archeology)이나 史後考古學(Historical

archeology)을 歷史(KDC 902.5, KDCP 206, NDC 7版은 202.5, NDC 6-A版은 先史考古學은 人類學 아래의 469.7)에 分類하는데 對하여 DDC 16版은 先史考古學은 571에, 先史 및 考古學一般이나 各國의 考古學은 913(古代文化) 아래 分類하거나, 別法으로서는 各國의 歷史와 함께 分類하여도 15版과 같이 좋은 指示를 하고 있다.

가. 各國의 遺物, 遺蹟은 그 나라의 歷史와 함께 分類한다.

DDC도 571 先史考古學은 使用치 않고 913 아래나 各國의 歷史와 함께 分類한다.

例: 韓國의 遺物, 遺蹟 KDC 911.0025 DDC 951.9 또는 913.519

나. 各時代 各地方의 遺物, 遺蹟은 그 時代 및 그 地方의 歷史와 함께 分類한다.

例: 樂浪時代의 遺蹟, 遺物 KDC 911.023

例: 湖南地方의 遺物, 遺蹟一覽 KDC 911.9

別法: 날·날의 遺物, 遺蹟은 各時代의 것도 모두 그 나라의 考古學에 모은다. 즉 一地方史, 一時代史에 分類하지 않는다. 그러나 一地方에 있는 遺跡, 遺物의 一覽은 그 地方의 歷史에 넣는다.

다. 考古學 資料를 研究한 結果에 따라서 歷史를 記述한 著作은 歷史 및 各國史에 分類한다.

古錢學

古錢(古泉 또는 錢貨)學을 KDC는 902.6에 NDC는 202.7에 歷史補助學으로서 配定하고 藝術的 價値가 있는 것은 KDC는 620 彫刻下의 628.9에 NDC는 730 版畫의 739.9에 넣는데 KDCP나 DDC는 歷史에는 아무런 設定이 없고 둘다 彫刻(sculpture KDCP 430 DDC 730) 아래에 泉貨學(KDCP 434 DDC 737)를 設定하고 있다.

그러나 古泉은 그것의 精巧에 따라서 當代의 美術을 斟酌하는 것 뿐이 아니라 經濟上으로도 重要한 遺物이며 또 材料로서의 金銀銅中 어느 것을 썼느냐에 따라서 工業의 發達을 推論(例를 들면 純粹한 銅製라면 冶金術이 極히 發達한 것을 알 수 있다)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의 歷史補助學으로서의 意義도 크다. 東洋에서는 別效果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西洋에서는 그것에 刻印된 君王의 肖像 尊號 徽章 當代統治者의 數年代等(希臘의 것의 例)까지도 있는 古泉이 있어 貴重한 史料가 된다.

KDC나 NDC는 歷史下에 古錢學이 設置되었으니 別問題지만 KDCP나 DDC에는 歷史補助學으로서의 古泉은 어떻게 넣어야 할 것인가 問題가 생길 수가 있으나 歷史의 遺物로 取扱하여 KDCP는 206 考

古學에 DDC는 913에 넘으면 된다.

歷史的 住宅

가. 有名한 人士와 關聯이 있는 家屋, 또는 地方의 歷史는 그 地方의 歷史와 함께 分類한다.

例를 들면 <런던의 名家屋 및 教會>는 런던의 歷史(KDC 924.4 DDC 942.1)에 넣는다.

나. 有名한 家屋의 建築을 나타내려고 한 著作은, 建築에 分類한다.

歷史資料

가. 어떤 나라나 時代의 歷史에 關係가 있는 諸歷史資料(年代記, 日記, 裁判, 詩等의 拔萃도 包含함)는 그 資料의 形態如何를 不問하고 歷史에 分類한다.

例: Source book of English history, ed. by Elizabeth Kimball Kendal. KDC 924: DDC 942

나. 어떤 特殊(例: 經濟的, 社會的, 藝術的, 文學的等)觀點에서 다룬 한 나라나 時代의 歷史資料에 關한 著作은 各各 그 主題의 歷史 아래 分類한다.

다. 政治的 性格이 있는 現代演說, 그 小冊子類 또는 談論等은 政治學 아래 分類한다.

라. 古文書를 研究 鑑定 審査하는 學問 또는 古代文獻類를 現代語로 쓰는 것을 著作한 圖書는 古文書學 아래 分類한다.

KDC는 古文書學은 歷史(一般 902.9, 韓國 911.0091) 아래, KDCP도 歷史(一般 202, 韓國 210.2) 아래, DDC는 言語學(15版에서 一般 417, 英國古文書學 421, 他國—7로 配置하고, 16版에서는 一般 417, 英國古文書學 221.7, 他國—17로 設定했음) 아래에 分類하고, 저 NDC도 歷史(一般 202.2, 日本 210.9) 아래 分類한다.

다. 文獻考證

歷史資料의 書誌學的 意味의 文獻考證이나 또는 그것을 爲한 資料는 書誌學(KDC 010: DDC 010: NDC 020) 아래 分類한다.

地理區分·時代區分·形式區分

가. 歷史에 있어서 第一次區分은 地理區分으로 時代區分에 앞선다.

例를 高麗時代의 慶尙道의 歷史는 慶尙道의 歷史(KDC 911.8)에 分類하고, 高麗時代의 一般史(KDC 911.04)와 함께 分類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한 特殊地方의 歷史의 時代區分은 그 地方史의 分類記號를 먼저 주고 다음에 添加된다. 그러나 一般史를 쓰기 爲해서 한 時代의 한 地方에 歷史를 斷片的으로 다룬 著作은 一般史 아래 分類한다.

나. 歷史에 있어서 各國의 時代區分은 地理區分 다음에 0을 하나 同伴한 數字에 依해서 表示된다.

- 例：高麗時代史 KDC 911.24
- 高麗時代史 慶尙道 KDC 911.804
- 清史 KDC 912.06
- 清朝의 華北地方史 912.106

이 時代區分은 各國史 및 必要에 따라서는 地方史에도 여기의 例와 같이 適用할 수 있다. 그리고 歷史에 있어서 時代區分이 0을 同伴하는 例는 DDC NDC가 모두 共通이다.

다. 歷史에 있어서는 時代區分에 <0>이 하나 使用되었으므로 特別한 例를 除外하고는, 形式區分은 0을 둘 同伴한 것이 된다.

例를 들면 韓國國史事典은 911.003이고 911.03(三國時代史)가 아니다.

이 地理區分은 大陸區分과 國家區分 및 地方區分으로 이루어지며 KDC DDC NDC 등의 十進分類表系統에서는 이 歷史의 地域區分을 地理에서도 各國의 地理區分으로도 適用하였으므로 歷史와 地誌가 完全한 助記性を 維持하고 있으며 또 이 地理區分은 그 適用이 發展하여 어떤 特殊主題, 例를 들면 經濟, 政治, 教育, 行政, 風俗, 音樂等等……이 어느 特定地域을 限界로 해서 다루어졌을 경우, 그 地域의 表示로서도 使用되는 것이다.

이 地理區分은 國際情勢나 戰爭으로 因해서 자주 많은 變更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第2次大戰後에 있어서의 西歐의 植民國家이었던 아프리카의 數 많은 獨立國家의 出現과 가까운 例로서는 敗戰 日本의 中華民國에 對한 臺灣返還과 樺太 및 千島列島의 소련에 對한 返還에 依한 領土變更도 들 수 있다. 또한 國內에서도 行政區域의 變更으로 地域이 變更되는 例가 있으니 例를 들면 錦山郡이 忠淸南道에 編入된 것이다.

이러한 地域의 變更에 隨時로 應해서 分類表의 地理區分을 改正해 나간다는 것은 성가신 일이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適應할 것인가 하는 點을 DDC事務局에서는 政治的인 提携에 依하는 것 보다도 比較的인 固定的인 地圖上의 位置에 依할 것을 勸했고, 또 領土의 變更에만 訂正을 하고 한 나라 안에서 것은 特別市 直轄市 道程度로 그치라고 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自館의 事情만 許諾되던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隨時로 誠實하게 適應해야 한다.

時代 및 治世

가. 한 時代나, 또는 한 治世를 다룬 著作은 바로 그 時代나 治世에 分類한다.

- 例：唐史 KDC 912.038

나. 二時代나 또는 二治世를 同等하게 다룬 著作은 最初의 時代와 治世아래 分類한다.

- 例：古朝鮮時代와 漢郡縣時代史 KDC 911.021

다. 三時代나 또는 三治世以上을 同等하게 다룬 歷史書는, 이것들을 包括하는 時代 아래 分類한다.

- 例：高句麗·百濟新羅史 911.03

라. <나> <다> 어느 경우이든지 著者が 어느 한 時代나 治世를 重點的으로 強調한 것은, 그 強調된 時代나 治世아래 分類한다.

地方史

가. 한 나라의 한 地方에 限한 地方的 事件을 다룬 著作은 그 地方的 歷史 아래 分類한다.

나. 한 戰爭中の 한 地方的 歷史를 다룬 著作은 그 地方的 歷史아래 分類한다.

이 規定의 適用은 地方史를 目的으로 記述하였을 경우에만 한다.

다. 한 地方的 事件이 國家的인 運動(例：蜂起, 革命, 反亂, 軍事行動等)의 一部를 構成하는 경우는 그 地方的 歷史에 넣지 않고, 그 事件이 있었던 時代나 戰爭의 一般史아래 分類한다.

라. 地方史를 地誌와 함께 混合配列하고자 하면 前述한 <歷史와 地誌의 融合排列規定>을 適用하여 다음과 같이 分類한다. KDC에 依해서 規定을 適用하겠다.

- (1) KDC 911.1—99(地方史)는 KDC 981.11—981.199(地方地誌)에 分類한다.

- 例：湖南史 981.19 (그렇지 않으려면)

- (2) KDC 981.11—981.199는 KDC 911.1—911.99에 分類한다.

- 例：湖南地誌 911.9

그리고 이 記號의 앞에다 G(eography)나 H(istory) 등의 頭文字를 써워서 歷史와 地誌를 區別하는 方法을 考慮할 수 있다. (次號에 繼續)

(26面에서 繼續)

떠난 方法을 擇함으로써 보다 바르고 옳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言及해 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問題가 兒童의 讀書發達이나 興味發達을 無視하고 먹이자는 것이 아니고 讀書心理에 알맞는 指導로서 보다 健全한 讀書生活을 하겠음 하자는 目的이 있다.

1원짜리 꾸겨진 돈을 가지고 거리의 圖書館?에서 無秩序한 讀書. 良書 아닌 惡書의 讀書生活에서 오는 兒童의 生活을 바로 잡아 주자는 데에서도 이 問題는 眞摯하게 研究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圖書를 書架에 꽂아 놓고 圖書館의 구실을 다했다는 그것은 健全하게 發展해 나가는 學校圖書館을 暗澹하게 만들 따름이다.

眞實로 學校圖書館이 學校教育의 心臟部的인 役割을 다하기 爲해서는 讀書指導의 體系的인 指導가 時急하게 要求되기 때문에 愚見을 말했을 뿐이다.